



“우리는 아직 수박등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어.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23-24일 예술극장...ACC 공모 수상작
1980년 실제 수박등 이야기 각색
거대권력 맞서는 평범한 사람 이야기



‘수박등 사람들’ 공연 모습 <ACC제공>

서기 2112년, 파괴된 지구 환경 속 유일한 게 살아남은 인류의 마지막 안식처 ‘씨투를 루스라나’. 복제인간을 생산해 모든 사회 서비스를 대신하고 있는 이곳에서 누군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이보그의 길을 선택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육신을 포기하고 두뇌 세포만을 남겨 정신세계로만 존재하며 누군가는 냉동캡슐 속에 넣어져 100여년을 잠들어 있다가 이제 막 깨어난다. 미래 세계의 가장 강력한 통제탑. 절대적 권력의 핵심 장치로 시민들을 통제하는 이곳은 과거 우리가 뛰놀던 아름답고 자유로웠던 ‘수박등’이다.

어릴 적 도심 속 한적한 변두리 ‘수박등’이라는 작은 언덕에서 우정을 나눴던 세 친구들이 기구한 인생 역정을 통해 결국 100여년 후 아득히 먼 미래 어느 한 곳에서 상봉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3-24일 ‘수박등 사람들’ 공연을 ACC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올린다.

‘수박등 사람들’은 ‘제1회 ACC 스토리 공모사업’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1980년 광주 월산동 ‘수박등’에 살았던 아이들이 실제 겪은 이야기를 미래사회로 배경을 옮겨 새롭게 각색한 음악극이다.

극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

거대 권력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이러한 설정은 우리 가족과 주변인에게 일어날 법한 일로 상징화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누구에게나 일어났었고 일어날 수 있는 영화 같은 여행에 관객은 어느새 함께 하게 된다.

지난해 시범공연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이 작품은 이후 관객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미래사회 세계관의 확장과 인물간의 갈등구조 등 연출안을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여기에 10인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은 재미와 감동을 더한다.

이강현 전담장은 “ACC는 ‘시간을 찢는 사람’, ‘지정’, ‘마디와 매듭’,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등 ACC 스토리 공모사업 수상작들을 작품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자체 발굴한 원전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시민 이야기가 계속해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ACC 창작 공연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박등 사람들’은 23일 오후 7시30분과 24일 오후 3시 두 차례 선보인다. 관람 연령은 8세 이상으로 입장료는 전석 1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과 전화 상담실(1899-56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2023 광주사직단오축제
“더위야 물러가라!”

지역사회의 번영을 염원하는 풍년 기원 축제 ‘2023 광주사직단오축제’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광주사직단오축제위원회와 광주 남구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24일 낮 12시 광주사직공원 관덕정 일대에서 ‘더위야 물러가라!’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에 이어 개막식, 제4회 광주남구청장배 공도대회 시작을 알리는 시사와 함께 막을 올린다.

이어 단오날 선조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던 의식을 그대로 재현해 전통 문화 계승에 나선다.

오후 2시에는 광주공원 회경루에서 목사출정식을 갖는다. 말 8필에 나뉘는 탄목사 일행이 취타대와 함께 회경루



24일 사직공원 관덕정 일대 개최 목사출정·취타대공연 등 ‘다채’

에서 출발해 천변 좌료를 거쳐 사직단 거리를 거니는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어 3시에는 사직단에서 광주지역 유림들과 각급 기관장이 참여한 땅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시작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단오축제에서는 전통문화를 통한 정신 계승과 함께 흥겨운 놀이문화도 마련됐다.

취타대 공연에 이어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김대균 명인이 펼치는 줄타기, 인기 가수들의 무대 등 신명나는 축제의 장이 준비됐다. 이와 함께 행사장 주변에서는 단오선, 애호, 장명루 등 전통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다.

/최명진기자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 상영작 모집

10편 선정·상금 총 3천만원

전남도는 21일 “남도의 자연, 음식, 역사, 소리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과 재밌는 영화가 어우러진 고품질 축제의 장이 될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NamDo Film Festival)’ 상영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 첫 국내 작품 공모는 2022년 5월 이후 제작된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적 창작자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장르나 형식은 제한 없으며 상영 시간 60분 이상이면 장편, 60분 미만이면 단편으로 구분한다. 공식 누리집(www.ndff.kr)을 통해 7월31일까지 출품할 수 있다. 시상은 본상과 특별상으로 구분되며 총 10편에 3천만원 상당의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한다.

영화제는 총 25개국 80여편의 영화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쟁작으로 20여편을, 60여편은 초청작을 상영한다. 올해 10월11일부터 6일간 순천시와 전남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국진 문화예술과장은 “국내의 영화팬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영화제, 도민에게는 남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무등디카시촌 5·18청소년디카시 전시회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무등디카시촌 5·18청소년디카시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디카시는 시적 이미지를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5쌍 이내 시어와 결합, 폭넓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낸 총 39점의 디카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선중 1학년 조현서 학생의 ‘오월의 꽃’ (사진) 디카시는 5·18이 민주의 꽃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현 무등디카시촌 회장은 “이번 전시가 청소년들에게 5·18민중항쟁의 정확한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심는 보람찬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디카시촌은 다양한 연령대 시인 및 문학애호가들로 구성된 창작 집단이다. 디카시 작품 감상 및 쓰기는 물론 다양한 SNS활동을 통해 디카시의 보폭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오는 10월 영호남디카시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최명진기자

“하얀 꽃이 붉게 변하고/광주의 자유와 평화는 무너지지만.../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붉은 꽃은 민주의 꽃으로 변해/우리의 너리에 영원히 피어난다” - 조현서 학생 디카시 ‘오월의 꽃’ 전문



“하얀 꽃이 붉게 변하고/광주의 자유와 평화는 무너지지만.../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에 의해/붉은 꽃은 민주의 꽃으로 변해/우리의 너리에 영원히 피어난다” - 조현서 학생 디카시 ‘오월의 꽃’ 전문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